

# 우회 vs 강경... 2野 ‘靑 거부권 대응’ 온도차

### 더민주 “與 수에 안 넘어가”...민생 우선 투트랙 전략

### 국민의당, 위헌 소지 반박·철회 촉구...연일 정면 대응

‘상시 청문회’가 가능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문제와 관련, 공동 대응 입장을 나타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최근 미묘한 온도차를 보여 주목된다.

더민주 26일 오전 국회에서 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대신 민생·정책 메시지를 강조했다. 이상호 원내대표는 “국회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더민주 26일부터 본격 민생 행거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과 한창제 정책위의장도 경제 성장률 저하와 보육 문제 등 정책 발언에 집중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3당 수석이 원 구성을 법적 시한 내 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민주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후폭풍에 말려들지 않고 원 구성 협상과 민생 현안 등 이슈는 별개로 진행할 방침으로 기각을 잡은 분위기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카드에 대해 “알은 수이자 위기 모면수로, 여기에 넘어가지 않겠다”면서 “애 (거기에) 목숨을 거나. 우리는 민생에 목숨을 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내면에는 국민의당에 대한 견제

심리도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야권의 만행으로서 보다 성숙한 자세를 보이면서 국민의당과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당은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카드 철회 촉구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연일 정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은 법률 효력 발생을 저지할 뿐 법률 자체를 폐기할 수는 없다”며 “청와대와 법제처, 새누리당은 무리한 해석으로 청문회 활성화 법안의 위헌성을 판단하거나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정부 여당, 또 많은 학자의 해괴망측한 논리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며 위헌 소지 등 일각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문회 활용 수위를 높고 있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에서는 상임위 청문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나 어버이연합 의혹 등 정부의 잘못된 문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더민주에서는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허용됐다고 해도 이것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청문회를 남용할 경우 정쟁만 남발하는 비생산적 국회가 재연될 수 있다는 명분이다.

한편,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25일 전국 성인 50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에서 응답자의 57.6%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29.1%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박지경기자 jkpark@

# 野, 與에 “본연의 임무 충실하자”

### “내부사정 복잡...원 구성 협상 진전 없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새누리당에 논총을 보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원내대표는 26일 “집권당의 내부사정이 매우 복잡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까지 방한, 대권도전 시사발언까지 하면서 나라가 좁아수선하다”며 “원 구성 협상도 이것 때문에 잘 진척되지 않아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국회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원 구성 협상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새누리당 내부 정비를 좀더 빨리 해주실사 요청드린다”며 “집권당 내부사정으로 원 구성이 미뤄진다면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겠는데 우려가 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원내정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 구성 협상 논의는 새누리당이 제안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새누리당에서) 요즘 연락이 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이날 혁신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마친 만큼 3당의 원 구성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법정기한인 다음달 9일까지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마칠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현행 18개인 상임위원회 수를 유지키로 했으며 국회법에 따라 다음달 7일까지 국회의장단을, 9일까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다만 원구성 협상의 쟁점인 국회의장 선출, 상임위원장은 배분 문제와 관련해선 의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YS 묘비 제막식...여야 한자리

26일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생전 어록을 빼곡히 새겨 놓은 추모비와 묘비 제막식이 국립현충원 YS 묘역에서 열렸다.

이날 현직 여야 유족 대표 인사에서 “아버님은 생전에 ‘역사를 잊으면 잘못된 역사가 반복된다’고 항상 말씀하셨다”며 “마침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정당 대표께 아버님이 남긴 유언인 ‘통합과 화합’의 정신을 절대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제막식에는 아내 손명순 여사 등 유족과 정의화 국회의장,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중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현기환 청와대 정부수석, 박희태·박관용 전 의장 등 정·관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완주는 웃으면서... 26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묘비 제막식이 열렸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서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정의화, 제 2 정치행보

### 싱크탱크 사단법인 ‘새한국의 비전’ 출범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새한국의 비전’ 출범식을 갖고 ‘제2의 정치활동’에 나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의화 “중도세력의 빅텐트를 펼치겠다”고 언급해 당장은 싱크탱크로 출발하지만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것이 ‘플랫폼’이 돼 신당 창당으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오는 29일 퇴임을 앞둔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새한국의 비전 창립 기념식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싱크탱크 출범은) 내년 대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국(大國)으로 발전시키는 일에 힘을 보태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의화 의원은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새로운 정치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고, 수용하고, 조율할 줄 아는 리더십, 사회적 갈등을 녹여내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의화 의원은 “대통령 단일제는 이제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며 “내년 대선에 나설 후보들이 취임 1년 내 대통령에 대한 권한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이원집정부제로 개헌할 것을 공약하고, 정당들도 당파적 이해를 떠나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김희옥 새누리 비대위원장 “수단 안가리고 혁신”

### 다음주 전국위원회서 추진

새누리당은 26일 임시지도부인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김희옥(68·사진) 전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을 내정했다.

경북 청도도가 고향인 김 내정자는 검사 출신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거쳐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현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자윤리위원장을 역임했다. 모교인 동국대학교에서 총장으로도 재임했다.

이로써 20대 총선 참패 이후 40여 일간 지속된 새누리당의 지도부 공백 사태도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새누리가 무엇을 버리고 내려놓을지 판단할 경륜의 소유자로 혁신 논의를 이끌 적임자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일단락되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김희옥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인선 배경에 대해 “김 내정자는 청렴하고 원칙을 지키는 소신을 중시하는 인물로, 개혁의 추진을 위한 수단 안가리고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내정자는 “비대위원장을 맡은 이상 새누리당이 국민 행복과 안전,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기관을 창출하는데 참여함으

로써 더욱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확실히 혁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오전 김무성 전 대표, 최경환 의원과의 3차 회동을 통해 김 내정자가 비대위원장에 가장 적임자라는 데 합의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김 내정자를 직접 만나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고, 김 내정자는 이를 뒤인 이날 수락 의사를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다음주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김 전 위원장의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인선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친박계 좌장인 최 의원과 비박계의 리더 중 한 명인 김 전 대표가 합의한 만큼 무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 더민주 청년 일자리 TF 첫 회의

### ‘민생 4대 TF’ 활동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청년실업 대책 등을 논의하는 청년 일자리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민생 4대 TF’ 활동을 본격화했다.

더민주 26일 13일까지 이틀간 광주에서 연 당선인 워크숍에서 청년 일자리, 전월세 등 서민주거안정, 기계부채, 사교육비 절감 등 4개 민생과제를 다룰 TF를 만들고, 현장 맞춤형 활동으로 민생과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한 바 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브

리핑에서 나머지 3개 TF도 곧 구성할 예정이라며 “4개 TF 모두 당초 목표가 시급한 민생현안을 선정해 정기국회 통과를 선점하고 성과를 끌어낸다는 취지였지만 장기적 고민이 필요하다면 다른 TF, 상임위와 협조할지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일자리 TF 간사인 박정 당선인은 브리핑에서 4인의 이상민 의원을 단장으로 오세재 총영표 박병계 유은혜 등 재선 이상 의원과 10여 명의 당선인이 청년일자리 TF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 대 지

### 투자 가치 좋습니다

- 전남 여수시 서교동 668-7, 8번지 서교동 로타리 우리은행 바로 옆
- 대지 260평 (120평 140평 분할 가능)
- 일반 상업지역 / 6차선 도로 접 / 현, 주차장
- 시세 / 감정가 - 23억원
- 용 12억 8천만원 있음 /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협의
- 병원 / 사무 / 무인텔 / 상가 / 대형마트 등등 적합
- 1층 조립식 건축 후 상가 임대료 1,200만원 예상
- 주인직매 H. 010-8829-6876

## 숙 박

### 호텔급 대형 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객실 58개
- 시세 / 감정가 - 15억
- 매매 - 10억 (조정가능)
- 경매로 7억 3000만원에 낙찰
- 용 6억 3000만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공사비 4억 예상)
- 리모델링 후 연 4억 이상 순수익 가능
- 리모델링 후 20억 이상 매매 가능
- 소유자 H. 010-3605-5000

# 오천경매

▶ 투자 하실 분! 공동 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 비법 배우실 분!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 등 1200만원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대표 최선규 H.010-3605-5000